

교회소식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사람책 행사가 '인생은 모험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오후 1:30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폐제 찬양과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30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하동 무농약 매실 예약 주문받습니다. 장아찌용 5kg 28,000원, 액기스용 5kg 20,000원, 황매실 5kg 28,000원입니다. 10kg이상 주문시 택배 가능합니다.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단양동지방 웨슬리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옵니다.

고 정선희 권사님 자녀분들이 오늘 점심식사와 떡과 커피를 대접합니다.

예배실 안으로 물 이외의 음료수는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옆자리에 앉은 이가 불편하지 않게 자세를 바르게 합시다.

호 4:1-10

오늘 식당 봉사 : 권미숙 조경자 최옥자 최미자 유금주 이경아 박구병 정현모
다음 주 식당봉사 : 신영신 김진경 최종미 박정숙 장미경 박경원 송인선 송동준
오늘설거지봉사 : 2여선교회(61-65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3여선교회(56-60세)
커피 판매 봉사 : 2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성령강림 후 2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6. 구세주를 아는 이들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이 영원히 찬양할 이름,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짓누르는 듯한 세상살이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든 우리의 영혼을 활짝 펴주십시오. 우리의 눈빛을 새롭게 바꾸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새로운 노래가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어디를 가든 당당하고 생기 넘치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비극이 끝없이 반복되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픔과 고통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 곁에 다가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품을 열어 아픈 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호12:5,6 인도자

♣ 교 독 문 60. 시편 139편 다 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2부대표기도 김재흥 목사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393. 오 신실하신 주 다 함께

♣ 성경봉독 벧후 3:11-18 I.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왕께 찬양합니다 찬양대

말 씬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라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원	고숙이	김나름	김명순	이교영	김명하	오형일	김성우	박유경	김성욱
진혜정	김수진	김승현	김수진	김영호	김정린	김정훈	김진영	김준호	박혁재
김중수	이순정	김지호	전해리	김철수	유영남	김태정	문홍일	박오미	박예림
박인혁	박준희	이기분	성지현	신정훈	이은미	안종일	정현주	오미숙	오슬기
우순덕	윤성종	김윤정	은종인	이부곤	이상준	이유진	이은실	이재국	손의나
이주경	안상숙	이진영	한양미	이치림	강상연	임고운	오재형	임서영	임승동
백혜숙	임영정	경례	임호성	장원호	박성희	정영래	전영린	김행자	정원석
김현영	최미자	최숙	최재욱	이수정	최진성	최영홍	한봉섭	한상경	한상익
정영선	한완식	임정자	한인철	조윤숙	허신열	홍소형			

감사헌금

김영순	김정근	김중수	이순정	김태원	김해선	김희우	김기석	문금석	박옥순
박지영	이현정	서은혜	안효정	이미정	이부용	이수자	이순이	이은혜	임광호
장영숙	최미선	추은총	황경순	황재모	나오미	1,2선교회	시므온선교회	무명11	

녹색꿈헌금

송희원 우순덕 윤미경 윤수진 임설희 전 용 정다운 무명9

생일감사헌금

김영희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박영희	청 파1속	김재흥	교회
안 디 옥	최경미	이은옥	청 파2속	송형운	
가 나 안	장영숙	김명순	청 파3속	하현철	
베 다 니	박홍재	김경수	청 파4속	김정민	
시 온	권미숙	박효선	청 파5속	장영숙	
에 베 소	백혜숙	백혜숙	청 파6속	신진식	
빌 립 보	곽권희	곽권희	청 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이수정	청 파8속	이범석	
나 사 렛	김경혜	김희우	청 파9속	김인걸	
			청 파10속	장영숙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다리를 외롭게 하는 사람

- 김사인

하느님
가령 이런 시는
다시 한번 공들여 옮겨적는 것만으로
새로 시 한 벌 지은 셈 쳐주실 수 없을까요/
다리를 건너는 한 사람이 보이네
가다가 서서 잠시 먼 산을 보고
가다가 쉬며 또 그러네
얼마 후 또 한 사람이 다리를 건너네
빠른 걸음으로 지나서 어느새 자취도 없고
그가 지나고 난 다리만 혼자서 허전하게 남아 있네
다리를 빨리 지나가는 사람은 다리를 외롭게 하는 사람이네/

라는 시인데
(좋은 시는 얼마든지 있다구요?)
안되겠다면 도리없지요
그렇지만 하느님
너무 빨리 읽고 지나쳐
시를 외롭게는 말아주세요, 무쪼록/
내 너무 별을 쳐다보아
별들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내 너무 하늘을 쳐다보아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덜덜 떨며 이 세상 버린 영혼입니다
*이성선 시인(1941~2001.5)의 「다리」 전문과 「별을 보며」 첫부분을 빌리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2부찬양	양	462. 생명 진리 은혜 되신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거짓과 탐욕을 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며 사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함께 할 것입니다.			
다 함께: 아멘. 그릇된 목표를 세우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인내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이가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사람책 / '인생은 모험이다'	낮 집회 / 설교 : 김재홍 목사 저녁 집회 / 떼제 찬양과 기도회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김문주 집사

5월	1부 영접위원	김성우 박유경
	1부 헌금위원	오미숙
	2부 영접위원	하현철 김종락 최재욱 정현숙 박영신 이수정 김현주
	2부 헌금위원	김인걸 박미영

믿음으로 읽는 글

저 아이 좀 봐

홍순관 글 / 백창우 곡

디디담담 디디담담
저 새들 좀 봐
자유로이 하나님도 볼 수 있겠네
저 흐르는 강을 봐
너무 깊어 하나님도 건널 수 없겠네
저 나무를 봐
빛깔 고운 과일을 태어나게 하네

저 아이 좀 봐
이 세상을 넘어 가네
꽃과 말하며 신과 말하며 생명을 말하며
쉬운 말 툭툭 던지며
쉽게도 넘어 가네
어지런 세상 참 쉽게도 넘어 가네

“저 강은 너무 깊어 하나님도 건널 수 없겠네!” 어느 날 아빠는 일기를 쓰다가 잠든 딸, ‘소리’의 일기를 본다. ... 단강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던 한희철 목사의 이야기다.

얼마 후, 신기하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어린 아이들이 통했는지 같은 시기에 이런 말을 들려준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 여덟 살 다빈이의 말은 이랬다. “아빠, 새들은 하나님도 볼 수 있겠다. 그치?” 동생인 여섯 살 다솔이는 덩달아 호기심 많은 눈으로 열매 열린 나무를 보며, “아빠, 아빠, 저 과일은 나무가 태어나게 하지?” 그러다.

하늘의 언어들이 꽃잎처럼 나린다. 주워 담기도 벅차다. 아이들은 어김없이 어른의 스승이다. 어렵게 말을 꾸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난

것을 그대로 말하니, ‘제 말’이 되고 ‘제 세상’이 된다. 쉬우니 통한다. 누구 속으려면 꾀를 부리게 되고, 편법을 쓰려니 복잡해지지만 보았던 그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말하니 모든 사물과 자연이 통한다.

예수는 죽음을 향해 정면으로 걸었다.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비뚤어진 세상에게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말했다. ...

하늘의 길은 이 땅에서의 번민과 갈등도 쉽게 만드는 신비가 있다. 배고픈 오천 명도 거뜬히 먹이고, 뱃머리에서도 잠들 수 있다. 동화처럼 쉬운 메타포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 있다.

어울려 사는 세상에 옳은 말하기 어렵고, 남들 가는 쉬운 길 버리기가 쉽지 않다. 신자라면 마음과 영혼이 흐려지는 길은 걸지 말아야 한다. 절로 옳은 길이 쉬운 길이 되어야 한다.

바늘구멍을 어떻게 쉽게 들어가며, 저 너머의 세상을 어떻게 가뿐히 건너갈 수 있단 말인가. 어린아이처럼 꽃과 말하고 신과 말하며 생명과 말하고 자연과 말한다면 천국은 쉬울 것이다.

“저 아이를 좀 보라”는 것은, 아이가 바라보는 자연과 세상을 보라는 것이요, 아이 속에 숨어있는 신비한 언어를 들으라는 것이요,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천국을 보라는 것이다. 아이처럼 되라는 건 순진하게 되라는 것만 아니요, 이 세상을 넘어 있으라는 말씀이다. 복잡한 세상에 잡혀 살지 말고 훌훌 털어 쉽게 살라는 말씀이다. 외면이 아닌 안목眼目이요, 무시가 아닌 유연성이다. 장자蔣子の 말처럼 ‘쉬운 것이 옳다’는 것은 유치가 아닌 정직이다. ...

유대의 모든 문화를 뒤로하고 하늘의 법을 설파한 예수의 법은 ‘그다음’, ‘저 너머’의 세상을 보라는 것이다. 이 분의 파격을 따라가지 못하면 아이들의 말을 들을 재간이 없다.

아이들을 버린 시대, 예수는 아이를 천국에 비유했으니 아이를 보라는 것은 그늘을 보며 빛을 인식하라는 말씀이다. 웃음처럼 사라지는 아이들의 언어가 천국으로 달음박질하고 있다.